



하원수로길을 걷는 에코투어 참가자들의 발걸음.

가을 문턱, 숲속 수로길 따라 만난 자연의 빛깔

2019 제주섬 글로벌 에코투어

⑨ 1100도로~영실주차장~하원수로길~고지천~언물~표고밭길~궁산천길~한라산둘레길~법정사



쳐서 지나니 숲에도 가을 '성큼'
푸른빛 하원수로길 신비감 더해
숲에서 계곡까지 '오르락 내리락'
건천 트레킹서 만난 야생화 향연

‘처서’가 지나니 가을이 왔구나 싶었다. 아침 저녁 감도는 선선한 기운이 뜨거웠던 여름과의 작별을 알렸다. 가을의 문턱, 이 즈음 만난 숲은 더 싱그러웠다. 여름 내내 빛을 한껏 받은 나무는 여전히 짙푸르렀고, 숲안으로 들어온 산돌바람은 남은 더위를 몰아냈다.

지난달 24일 제9차 예코투어는 1100도로
영실주차장에서 하원수로길, 고지천, 언물, 표
고밭길, 공산천길, 한라산둘레길을 지나 무오
법정사로 내려오는 코스였다. 시원한 날씨 덕
에 참가자들의 걸음이 어는 때보다 가벼웠다.

영실주차장에서 오르막길을 따라 걸은지 얼마 안돼 '하원수로길'에 닿았다. 입구에 세워진 표지판이 길 위에 숨은 이야기를 전했다. 6·25전쟁을 겪고 빈곤에 허덕이던 1950년대 후반 서귀포 하원마을 주민들은 눈으로 만들기 위해 이 길을 냈다. 이는 영실물과 안물을 하원저수지로 보내는 통로가 됐고,

- ① 공산천을 따라 걷는 참가자들
- ② 언물 인근에서 만난 표고 재배 흔적
- ③ 탐방 중에 만난 붉은창사리버섯
- ④ 동충하초.

강희만기자

주변 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진 한라산을 오르려는 발길도 잦았다.

그 길 위를 걷자니 옛 사람들의 삶을 되짚는 듯했다. 굽지름에서 벗어나려 물길을 내는 데 흘렸을 무수한 땀방울에 고개가 숙여졌다. 푸른 이끼에 뒤덮인 수로길은 숲의 신비함을 더하기도 했다. 지금은 세 역할을 잃어버린 숲속 내리막에 끝없이 이어진 초록빛 길은 이곳만의 독특한 풍경으로 남았다.

하원수로길에서 방향을 틀어 고지천으로 걸음을 옮겼다. 물기를 가득 머금은 숲 내음이 코끝을 간질였다. 가는 길에 만난 적송은 거대한 몸으로 하늘에 닿을 듯 긴 가지들 뿐 어렸다. 숲과 함께해 온 시간의 무게가 느껴졌다.

고지천에 도착해 바위를 의자 삼아 한숨
 눌렀다. 계곡 곳곳에 남은 물 웅덩이를 어떤
 이는 “선녀탕 같다”며 웃었다. 거대한 바위와
 울창한 나무가 꼭꼭 숨겨놓은 듯한 공간, 그
 신비한 경관을 두 눈 가득 담았다.

고지전에서 얼마 안 가 인물에 다다랐다. 바위 아래 작은 우물 같은 틈에서 물이 솟았다. 길잡이로 나선 이권성 제주트래킹연구소장은 “인물은 1년 내내 물이 나올 정도로 수량이 풍부해 주변에 표고 재배 밭이 많았다”며 “ 인근 휴양림에서도 이 물을 끌어다 쓴다”고 말했다.

그의 말마따나 얼마 안 가 표고를 재배할
당시 누군가 머문 듯한 집터를 마주했다. 그
곳에 잎 없이 주황 꽃을 피운 제주상사화가
수줍은 듯이 고개를 내밀고 참가자들을 반겼

다. 가지마다 아이 손톱보다 작은 열매를 한
가득 맺은 초피나무의 향은 숲의 푸른 기운
을 더했다.

공산전에 도착해선 숲을 잠시 벗어나 계곡을 따라 걸었다. 날씨가 도와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소장은 ‘몇 해 전에 같은 코스로 예코투어 일정을 잡았는데 하천 범람으로 고지천을 건너지 못해 코스를 변경해야 했다’며 “공산천은 가을이면 건천 트레킹을 하기 좋은 곳”이라고 귀띔했다.

걸음을 늦춰 궁산천을 걸으니 자연이 주는 선물을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했다. 계곡을 따라 핀 머느리밥풀, 계백취나물, 비비추 등이 색색깔 꽃을 피우고 잔나비걸상, 부처손 등이 저만의 자태를 드러냈다. 계곡 바위에 걸터앉아 먹는 점심도 특별했다.

올해 아홉번째 에코투어는 공산천변을 따라 걷다 한라산둘레길 '동백길' 코스로 나오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 끝에서 만난 제주의 최초·최대 항일운동 발상지인 무오법정사가 이번 코스의 의미를 더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에코투어는 제주의 자연, 그 속에 숨은 문화·역사를 만나는 것을 넘어 함께 발맞춰 걸으며 소통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제주에 1년 살이를 왔다가 16개월째 머물고 있다는 홍복희(60·인천시)씨는 “에코투어는 단조로운 일상에 탈출구 같은 존재”라며 “제주 살아가 어찌 보면 단조롭고 외로운데 한할애 한 두번 에코투어에서 제주 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는다. 앞으로 1년 더 제주 살이를



하기로 결정한 데도 에코투어가 한 계기가 됐다”며 웃었다.

정정순(54·경기도 안양시)씨는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을 김잡이와 함께 안전하게 다닐 수 있어 오히려 더 좋다”며 “제주의 자연을 걸으면서 우리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자연을 훼손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2019 제주섬 글로벌 10차 예코투어는 오는 7일 진행된다. 비자림로 입구에서 숲길·이덕구산전·표고밭길·천미천·양하밭·숲길·삼다수숲길·말차오름·숲길·붉은오름휴양림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코스다.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illegible]